

전 양녕대군 초서 <後赤壁賦>에 대한 고증

Historical Research On the <Hujeokbyeokbu(後赤壁賦)>,
a Cursive Script Alleged to be Written by Yangnyeong Infante

柳志福 (Yu, Ji-B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후적벽부> 필자에 대한 고증 |
| 2. 판본 비교 및 서풍 분석 | 4. 맺음말 |
| 2.1 판본 비교 | <참고문헌> |
| 2.2 서풍 분석 | |

<초 록>

이 글은 양녕대군의 초서로 알려진 <후적벽부>의 필자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초서 <후적벽부>는 이미 양녕대군의 글씨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의 위패를 모신 사당 至德祠에는 <후적벽부>를 새긴 판목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그 판목 어디에도 양녕대군이 썼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다만 이 판목을 저본으로 하여 담양 몽한각에서 중각한 판목에 양녕대군이 썼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담양 몽한각의 판목 역시 19세기 말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그 이전에는 초서 <후적벽부>가 양녕대군의 진적임을 밝혀주는 어떠한 기록도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초서 <후적벽부>의 필자가 과연 양녕대군일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서풍을 분석하여 유사한 필적과 비교해보았으며, 다음으로 양녕대군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고 그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을 모아놓은 『至德誌』에서 글씨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후적벽부>를 새겼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역대 책판 목록을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초서 <후적벽부>는 양녕대군의 글씨가 아니며 16세기 초반에 성행했던 張弼 또는 黃耆老의 글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要語: 후적벽부, 초서, 양녕대군, 장필, 황기로, 목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전임연구원(smrjc@hanmail.net)

접수일: 2012년 12월 6일 최초심사일: 2012년 12월 11일 심사완료일: 2012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d the writer of the <Hujeokbyeokbu(後赤壁賦)> that was allegedly to be written in cursive hand by Yangnyeong Infante. The cursive script <Hujeokbyeokbu> has been widely known as the Infante's work. Moreover, the wood block on which it is carved is being kept still in the Jideoksa(至德祠), the shrine his ancestral tablet is kept. However, nothing is recorded on that block that tells it was written by him but only on the wood block of Monghangak in Damyang that was carved on the basis of Jideoksa's block. But as the block of Monghangak is assumed to be mad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re is no precedent evidence that proves the cursive script <Hujeokbyeokbu> was written by Yangnyeong Infante.

This article started from the question whether Yangnyeong Infante wrote the cursive script <Hujeokbyeokbu> or not. To find the answer, three kinds of analysis were conducted: penmanship trends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similar handwriting, literature search on 『Jideokji(至德誌)』 that collected his writings and life's trail records, and search of all the book lists that have the records about the carving of <Hujeokbyeokbu>. As a result, this article arrived at a conclusion that the cursive script <Hujeokbyeokbu> was not written by Yangnyeong Infante and is more likely to be written by Jang pil(張弼) or Hwang Gi-ro(黃耆老) that were popular in the early 16th Century.

Key words: Hujeokbyeokbu, Cursive Script, Yangnyeong Infante, Jang pil, Hwang Gi-ro, Wood block

1. 머리말

讓寧大君(1394~1462)이 쓴 것으로 전하는 草書 <後赤壁賦>가 있다. 이는 목판본 필적으로 현재 여러 종의 판본이 전하며, 글씨를 직접 새긴 판목도 3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초서 <후적벽부>는 8폭 병풍에 쓰인 글씨로 운필이 무척 활달하며 狂草에 가까우리만치 몹시 분방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양녕대군이 활동하던 15세기 전반에는 이러한 서풍을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16세기 접어들며 수용된 明張弼 또는 16세기 초서 명필 黃耆老의 서풍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초서 <후적벽부>가 양녕대군의 필적으로 전해지는 유일한 근거는 전남 담양 몽한각에서 중각한 몽한각본의 말미에 양녕대군의 시호인 ‘剛靖’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19세기 후반에 새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서풍도 16세기에 성행한 글씨들과 더 친연성이 있어 이 필적을 딱히 양녕대군의 진적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녕대군의 다른 유필이 있다면 서풍의 비교를 통해 그 진위를 분별해낼 수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양녕대군의 글씨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崇禮門 편액 글씨와 초서 <후적벽부> 2점뿐이다. 그런데 승례문 편액 글씨조차 그 필자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어 이 또한 양녕대군의 온전한 진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초서 <후적벽부>가 과연 양녕대군의 필적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서풍 분석을 통해 글씨의 특징을 파악하고 당시 서풍과의 연관성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양녕대군과 관련된 문헌 기록을 찾아 초서 <후적벽부> 필자에 대한 상세한 고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刻本의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판본 필적에 대한 분석 방법과 시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판본 비교 및 서풍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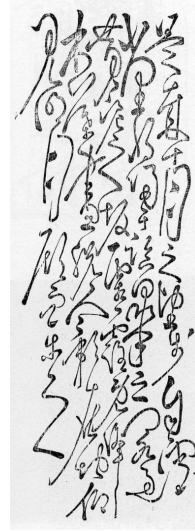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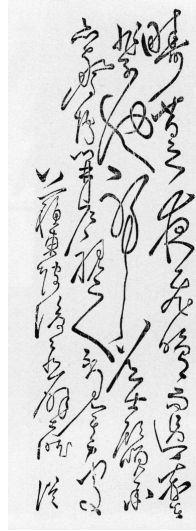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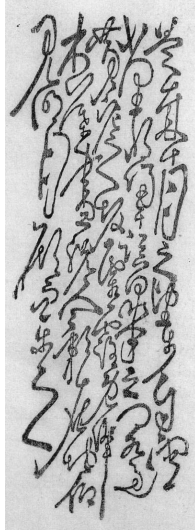
2.1 판본 비교

전 양녕대군 초서 <후적벽부>는 宋 蘇軾의 대표적 문장인 「후적벽부」를 狂草에 가까운 분방한 필치로 소화해낸 필적이다. <후적벽부>를 새긴 板木은 현재 3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첫 번째는 양녕대군의 묘역과 위패를 모시고 있는 서울 상도동 소재 至德祠에 소장되어 있는 판목이고(이하 ‘지덕사본’으로 약칭),¹⁾ 두 번째는 지덕사본을 저본으로 삼아 潭陽 夢漢閣에서 중각한 것으로 현재 몽한각에 소장되어 있는 판목이고(이하 ‘몽한각본’으로 약칭),²⁾ 나머지 하나는 경북 청도 소재 仙巖書院의 장판각에 있다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 보존되고 있는 密陽朴氏 仙巖門中 소유의 판목이다.

3종의 <후적벽부> 중 지덕사본을 제외한 판본 2종은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몽한각본은 조선왕조의 御筆을 다룬 기획전에 소개되었고,³⁾ 선암본은 목판을 주제로 한 기획전에 소개되었다.⁴⁾ 가장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지덕사본이 아직 소개된 바 없어 비교 도판으로 제시할 수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몽한각본과 선암본의 첫 폭과 마지막 폭을 보면 <도 1>, <도 2>와 같다.

이 두 종의 답본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마지막 8폭이다. 선암본은 말미에 “소동과의 후적벽부를 따라 썼다[蘇東坡後赤壁賦從]”는 내용의 款識로 끝나는 반면, 몽한각본에는 그 뒤에 세필로 쓴 두 줄의 刊記가 추가로 새겨져 있다.

- 1) 필자가 판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덕사에는 현재 4장의 목판 양면에 <후적벽부>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덕사 관계자의 진언에 따르면 이 판목은 원래부터 지덕사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소장하고 있던 판목을 어느 해엔가 지덕사로 가져와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 2) 몽한각은 양녕대군의 증손 李緒(1482~?)의 齋室로, 담양부사 李東野와 창평현령 李薰徽가 1803년(순조 3)에 지었으며,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어 있다.
- 3) 몽한각본의 도판은 『朝鮮王朝御筆』(예술의전당, 2002), 128-131쪽 참조.
- 4) 선암본의 도판은 『나무에 새긴 지식정보』 목판 (한국국학진흥원, 2008), 92-99쪽 참조.



<도 1> 傳 讓寧大君, <草書 後赤壁賦>
1·8쪽, 목판본 136×51cm 병풍,
담양 몽한각.

<도 2> 傳 讓寧大君, <草書 後赤壁賦>
1·8쪽, 목판본 119×41cm 병풍,
청도 밀양박씨 선암문중.

그 내용은 <후적벽부>를 중각하게 된 경위를 짧게 언급한 것으로, 이 필적이 양녕대군의 글씨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剛靖公의 유묵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은 崇禮門 편액의 세 글자와 이 書刻 뿐이다. 각본은 至德祠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흐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오래될수록 제 모습을 잃을까 염려되어 秋城 夢漢閣에서 중각하였다. 정해년 9월⁵⁾

‘剛靖’은 양녕대군의 시호이고 ‘秋城’은 潭陽의 옛 지명이다. 위의 인용문에 의거해 보더라도 몽한각본은 지덕사에 소장되고 있던 원래의 판목을 담양으로 가져가 몽한각에서 중각한 후대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암본에는 후대에 새겨 넣은 간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몽한각본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서는 선본임

5) “剛靖公遺墨，傳于世，惟崇禮門額三字及此刻，刻本藏于至德祠，歲久漫漶，懷愈久愈失真，重刻于秋城夢漢閣，歲丁亥九月也.”

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덕사본 역시 후대의 간기가 새겨져 있지 않은 몽한각본의 저본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선암본과 지덕사본 중 어느 게 선본인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현재로서는 두 본 중 어느 쪽이 앞서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를 더 진전시켜보고자 한다.

이 두 종의 <후적벽부> 목판 답본은 한 눈에 보아도 형태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이룬다. 몽한각본이 선암본에 비해 필획이 굵고 판각 수준도 떨어져 보인다. 선암본의 점획이 정교하여 종이에 직접 글씨를 쓴 듯 유려해 보이는 반면, 몽한각본은 필획의 강약 및 운필의 자연스러움이 비교적 떨어진다. 판목에 새겨진 글씨를 印出할 때 먹의 농담 및 먹을 문혀 찍어내는 속도, 종이에 대고 누르는 압력의 차이에 따라 답본의 질적 편차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점획의 세밀한 묘사와 운필의 자연스러움에 있어서는 선암본이 더 선본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답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선암본에는 판목의 순번을 나타내는 숫자가 오른쪽 하단에 새겨져 있는 반면 몽한각본에는 없다는 점도 두 판본의 우열을 가늠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2.2 서풍 분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후적벽부>의 필자가 양녕대군으로 전해지는 것은 몽한각본의 간기에 의해서이다. 이 기록이 양녕대군의 필적임을 입증해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필자가 양녕대군임을 알려주는 기록은 유감스럽게도 이것 말고는 없다. <후적벽부>가 양녕대군의 필적으로 전해지는 만큼 글씨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그의 서예적 역량을 밝힐 필요가 있는데, 여러 문헌을 살펴보아도 글씨와 관련된 기록은 승례문 편액을 썼다는 기록 외에는 전무한 편이다.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을 때 붓 만드는 筆匠인 金好生이란 자가 대군에게 붓을 뒀다는 기록을 통해 양녕대군이 평소 글씨를 가까이 하였음을 상상할 수 있을 뿐,⁶⁾ 그가 어떤 글씨를

6) 成俔, 『慵齋叢話』 권4, “金好生者本儒者也 少時居京 善造筆 讓寧爲世子 多引雜客以喪厥德 客有與之遊者 或誅或竄 好生一日持筆至其門 爲內使所縛 詣至御前推之 好生以實對 上曰 汝以外人交通青禁 汝能造世子之筆 亦可造予之筆 遂屬工曹爲筆匠.”

선호했으며 서풍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가 남긴 진적의 비교를 통해 서풍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의 서예 연원을 밝힐 필요가 있으나, <후적벽부>가 그에게 전칭되는 유일한 필적이라 이마저도 작업이 녹록치 않다. 그의 글씨로 알려지고 있는 ‘승례문’ 편액 글씨도 대자로 쓴 楷書이기에 광초에 가까운 <후적벽부>와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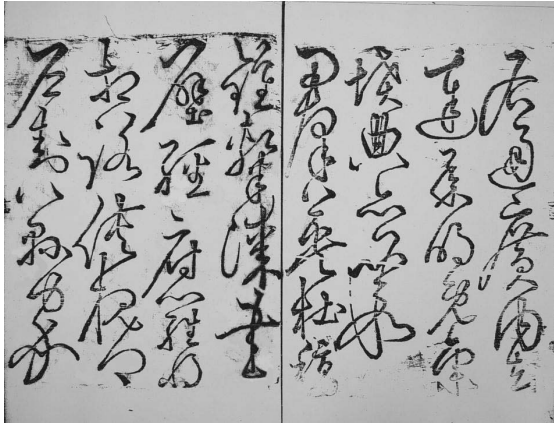
이에 본고에서는 <후적벽부> 하나의 작품에 집중하여 이 글씨의 특징을 잡아내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이 글씨의 연원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이 필적의 필자가 과연 양녕대군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 필적을 보면 우선 세 가지로 큰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점과 획이 기형에 가까울 정도로 과장되게 표현된 글씨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옆으로 그어 내리는 사선이 강조되어 강렬한 기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셋째, 세로로 내리뻗는 획에 파동세를 구사해 마치 처마에 빗물이 흘러내릴 때처럼 구불구불한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명대의 서예가 張弼(1425~1487)의 글씨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매우 친연성을 보인다(<도 3> 참조).



<도 3> 張弼, <張弼眞墨>, 지본묵서 138.4×64cm 병풍, 보물 제902호, 봉화 冲齋博物館.

또한 국내 서예가 중 장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16세기 전반에 초서로 명성을 떨쳤던 河西 金麟厚(1510~1560)와 孤山 黃耆老(1521~1575 이후)의 글씨와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도 4>, <도 5> 참조).



<도 4> 金麟厚, <草書千字文>, 1537년, 목판본 34.0×23.4cm 첩, 개인.



<도 5> 黃耆老, <草書歌行>, 1549년, 답본 54.5×25.0cm
《黃孤山筆帖》,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장필은 자가 汝弼, 만년의 호는 東海翁으로, 그의 아우 張駿과 함께 ‘二張’이라 불리며 해외에까지 명성이 자자하였다. 회소의 글씨에 뿌리를 둔 그의 초서풍은 1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국내에 유입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⁷⁾ 그의 서풍이 전래될 당시의 국내 동향에 대해 기록한 頤齋 黃胤錫(1729~1791)의 기록은 당시 장필의 글씨가 얼마나 매혹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설명해준다.

장필은 대개 가정 연간 사람으로,⁸⁾ 글씨 또한 그 시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 [그의 글씨가 들어오자] 온 나라의 서가들이 휩쓸리듯 그의 글씨를 따랐다. 하서[김인후]와 청송[성수침]같은 제현도 오히려 황망히 이 글씨를 즐겨 썼으며, 고산[황기로]과 봉래[양사언]는 이 글씨에 더욱 매료되어 자신의 글씨를 탈바꿈한 자들이다. … 본조에 들어와서는 安平 이하로 더욱 子昂을 조종으로 여겨 이를 蜀體라 하였고, 장필의 초서가 나온 뒤로는 조맹부의 초서와 함께 성행하였다. 그러자 退溪는 이들의 글씨가 모두 후학을 가르친다고 하며 이르기를 ‘조맹부를 배우려다 옛 법을 잃을까 걱정스럽고 장필을 흉내내다 헛수고만 할까 염려된다’고 하였으니, 그 배척함이 엄한 것이었다.⁹⁾

당시의 대유로서 단정한 짜임과 강직한 필법을 추구했던 이황이 조맹부와 장필을 싸잡아 비판하며 후학을 경계했던 것을 보면 장필의 서풍이 국내에 전해질 당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경북 봉화 충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張弼眞墨>(도 3)은 冲齋 權檉(1478~1548)이 1539년(중종 34) 奏請使로 연경에 갔을 때 사갖고 온 것으로,¹⁰⁾ 16세기 전반에 장필의 글씨가 국내에 유입되었음을 알려주는 실증적 사례이다.

-
- 7) 장필의 수용과 그 영향에 관해서는 柳志福, 『조선 중기 黃耆老 草書風의 유행』, 『美術史學研究』 253(韓國美術史學會, 2007), 97-101쪽 참조.
- 8) 장필의 생몰년은 1425~1487이므로 그를 가정 연간(1522~1566) 사람으로 본 것은 황윤석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 9) 黃胤錫, 『頤齋遺藁』 권12, 『書張東海千文法帖後』. “蓋嘉靖間人, 而書亦及其時東來, 一國書家靡然宗之, 如河西聽松諸賢, 猶駸駸游戲於斯, 而孤山蓬萊尤其酷好而興化者也, … 入本朝安平以下, 愈多祖子昂, 謂之蜀體, 及張草後出, 與趙盛行, 則退溪以爲俱誤後學而曰, 學步吳興喪失故, 效顰東海恐成虛, 其斥之嚴矣.”
- 10) 제1·2쪽은 장필이 쓴 글씨로 宋 程顥의 『秋日偶成二首』 중 둘째 수와 楊巨源의 『酬于駙馬二首』 중 첫째 수를 쓴 것이다. 3쪽은 권벌의 5대손 權斗寅(1643~1719)·斗經(1654~1725) 형제의 발문이 있다. 이 발문은 權斗寅의 『荷塘集』에 『書張東海草書帖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文化財管理局, 1988), 346쪽 참조.

또한 김인후가 1537년에 쓴 <초서천자문>과 황기로가 1549년에 쓴 <초서가행>은 장필의 글씨가 당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제 <후적벽부>를 기준으로 장필, 김인후, 황기로의 필적을 동시에 살펴보겠다. 이를 보면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특징, 즉 과장된 점획, 사선의 강렬한 기세, 파동세의 강조 등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표 1> 참조). 다만 김인후의 경우 파동세가 거의 표현되지 않고 거의 직선으로 내리 그어 다른 방식을 보인다.

<표 1> <후적벽부> 필획의 특징

| 특징1 과장된 점획 | | | |
|----------------|------------|------------|------------|
| 후적벽부 | 장필 | 김인후 | 황기로 |
| <p>顧 暮 呼 携</p> | <p>事 從</p> | <p>岡 年</p> | <p>常 奚</p> |
| 특징2 사선의 강렬한 기세 | | | |
| <p>道 裳 衣 在</p> | <p>如 威</p> | <p>嘖 存</p> | <p>既 衣</p> |
| 특징3 파동세의 강조 | | | |
| <p>斗 聲 也 虎</p> | <p>軍 中</p> | <p>弗 神</p> | <p>交 歸</p> |

이제 새삼 생기는 의문이 있다. 장필의 서풍이 수용되었던 16세기 전반기 이전 에 이런 특징을 선보인 사례가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없다. 장필이 수용되기 이전에는 조선 전기에 어느 서가의 글씨에서도 이런 특징을 보인 예가 없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과의 문화교섭을 통해 조선적 미감을 형성해왔다. 서예 역시 중국 서법의 수용을 통해 각 시기별로 독특한 서풍을 형성해왔다. 문예 방면에 있어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과 양식의 흐름을 思潮라 한다면, 서예에 있어 한 시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식과 유행 경향을 시대 서풍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시대 서풍은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이에 대한 수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 아무런 동기도 없이 자생적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조선조 전반에 걸친 시대 서풍의 생성과 변천과 소멸과정에서 우리는 누차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왔다.

이제 <후적벽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자. 과동세의 획법을 전혀 보이지 않은 김인후의 글씨를 비교대상에 제외하고 장필과 황기로의 글씨를 다시 한 번 비교해보면, <후적벽부>의 글씨가 좀 더 기다란 경향을 보이는 것을 빼고는 거의 비슷한 자형을 이룬다. 장필의 경우 대상 필적이 목판본이 아니라 먹으로 쓴 글씨이기에 유사성이 떨어져 보이지만, 황기로의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자형도 있어 더욱 유사한 경향을 띤다(<표 2> 참조).

<표 2> <후적벽부>와 장필·황기로의 초서 자형 비교

| | 得 | 來 | 是 | 時 | 與 | 有 | 自 | 風 | 何 |
|--------|---|---|---|---|---|---|---|---|---|
| 장필 | | | | | | | | | |
| 황기로 | | | | | | | | | |
| <후적벽부> | | | | | | | | | |

* 張弼, <張弼眞墨>, 지본목서 138.4×64cm 병풍, 보물 제902호, 봉화 沖齋博物館 소장.

* 黃耆老, <歸去來辭>, 1549년, 목판본 126×76cm 병풍, 경북 안동 개인 소장.

* 傳 讓寧大君, <草書 後赤壁賦>, 목판본 119×41cm 병풍, 청도 밀양박씨 선암문중 소장.

그렇다면 <후적벽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명나라 장필 이전에 나타난 조선 양녕대군 특유의 서풍으로 볼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어느 필적이든 한 시대를 선도한 서예가와 그의 서풍은 반드시 前代 서풍 및 對中交涉의 영향을 빼고는 설명될 수 없다. 더구나 양녕대군(1394~1462)의 생몰년이 장필(1425~1487)의 생몰년보다 빠르다는 점은 대중 서예 교섭과 수용의 시기적 측면을 고려할 때 설명되어야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 결국 <후적벽부>를 양녕대군의 필적으로 받아들일만한 당위성이 너무 적으며, 이를 전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후적벽부> 필자에 대한 고증

몽한각본의 간기에서 양녕대군의 유묵으로 세상에 전하는 것은 송례문 편액 세 글자와 <후적벽부> 서각뿐이라는 기록을 확인한 바 있다. 앞에서 <후적벽부>의 필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송례문 편액 글씨에 대해서도 여전히 필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송례문 편액 글씨의 필자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간행)에 수록된 것으로, 이 책에는 양녕대군이 편액 글씨를 쓴 것으로 되어있다.¹¹⁾ 또한 李肯翊(1736~1806)의 『燃藜室記述』에도 양녕대군의 글씨로 기록하고 있다.¹²⁾ 그러나 양녕대군 이외에 申檣(1382~1433), 鄭蘭宗(1433~1489), 柳辰全(1497~1561)이 썼다는 문헌 기록도 있어 송례문 현판 글씨의 필자를 양녕대군으로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따른다.¹³⁾

이처럼 양녕대군이 썼다고 전하는 2종의 필적 모두 현재로서는 그 필자를 양녕대군으로 귀결시킬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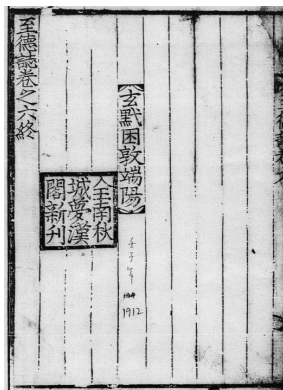
1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 『京都』의 ‘성곽’조.

12) 李肯翊, 『燃藜室記述』 권2 太宗朝故事本末, 『讓寧之廢』.

13) 신장 필자설은 金正喜(1786~1856), 『阮堂集』 권7, 『書贈洪祐衍』, 정난중 필자설은 李圭景(1788~1856),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6 論史類1, 『崇禮門大成殿額辨證說』, 유진동 필자설은 李裕元(1814~1888), 『林下筆記』 권30, 『各司題額』 참조.

진위야 어떠한 승례문 편액 글씨와 양녕대군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기록이 여러 차례 문헌에 등장하는 반면 <후적벽부>와 양녕대군과의 관련성을 다룬 기록은 어찌서 하나도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후적벽부>의 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至德誌』라는 책이 있다. 양녕대군 李禔와 관련되는 기록과 그의 위패를 모신 사당 至德祠 관계기록을 모은 책으로, 6권 2책의 목판본이다.¹⁴⁾ 양녕대군의 15대손李克善이 상·하 5권으로 편찬해두었던 것을 발문을 추가해 1912년 단오에 전남 담양 몽한각에서 6권으로 간행한 책이다(<도 6> 참조).



<도 6> 『至德誌』 마지막 면, 21.7×15.7cm, 장서각 소장.

이 책에는 양녕대군이 저술한 詩書 및 행적을 알려주는 행장·묘지명 등이 수록되어 있어 어찌면 이 책을 통해 <후적벽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14) 본고에서는 장서각 소장 『지덕지』(장서각 B9I 203)를 참조하였다. 『지덕지』 서두에는 양녕대군의 외후손인 任憲晦의 『서문』(1876년)과 奇宇萬의 『新刊序』(1911년)가 있으며, 권말에는 宋秉璿(1836~1905)이 1880년에 쓴 것을 포함한 7인의 발문이 있다. 맨 끝에는 고갑자로 쓴 간기 “玄默困敦(壬子, 1912)端陽”과 “全南秋城夢漢閣新刊”이라고 새긴 印出記가 있다. 편자 이극선은 고종 23년(1886) 선공감 가감역관으로 있었고 광무 6년(1902) 육군 부위에 임용되었으나, 기우만의 『신간서』(1911년)에 “이극선이 이미 고인이 되어 미처 그의 행실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11년 이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에는 閔鎮厚(1659~1720)와 尹鳳朝(1680~1761)가 양녕대군을 위해 지은 묘지명과 행장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송례문 편액을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이미 간주하고 있으며, 편액 글씨가 씩씩하고 굳세다는 평을 동시에 하고 있다.¹⁵⁾ 필자의 확실성 여부가 차치하더라도 송례문 편액 글씨를 양녕대군과 연관시켜 논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의문이 생긴다. 양녕대군의 행장과 묘지명에 송례문 편액에 관한 기록은 있으면서 <후적벽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진후와 윤봉조가 활동했던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후적벽부>가 양녕대군의 진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면 그들이 지은 묘지명과 행장에 양녕대군의 행적을 논하면서 <후적벽부>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덕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의 권5 말미에는 『零言隨錄』이 수록되어 있다. 『零言』이란 경전으로 치자면 外典에 속하고 사서로 보면 野史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향간에 떠도는 말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영언수록’이다.

무진년(1868, 고종 5) 겨울에 『지덕지』 편집을 시작해 갑술년(1874, 고종 11) 겨울에 마쳤다. 부지런히 찾아내고 애써 모아 가까스로 상하권 5권으로 엮었다. 훌륭한 행실과 아득한 행적이 세상에 흩어져 깊이 잠겨 드러나지 않는 것이 또한 어찌 끝이 있겠는가. 그러나 문자로 징험할 만한 데서 나온 것은 본편에 싣고 흘러 전하여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하여 들은 것은 아래쪽에 모아 『零言隨錄』이라 이름 하였으니, 실로 본편을 도와 은미하거나 빠트린 것이 없게 될 것이다.¹⁶⁾

위의 글은 이극선이 『지덕지』의 편집을 마친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 『영언수록』을 추가로 수록하고 그 앞에 細注로 ‘영언수록’을 추가한 배경을 서문의 형식으로 설명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영언수록』에는 <후적벽부>와 관련하여

15) 『至德誌』 권2, 『墓誌銘』[閔鎮厚 撰], “嘗書崇禮門扁額 而筆勢遒勁 亦人不可及云.”; 『至德誌』 권2, 『行狀』[尹鳳朝 撰], “其所書崇禮門扁額 字體遒健偏勁 見稱於世矣.”

16)李克善 編, 『至德誌』 권5, 『零言隨錄序』, “自戊辰冬始編至德誌 訖于甲戌冬 力矻搜剔 心苦纂綴 僅上下篇五卷 凡至行冥蹟 散寄人間 幽潛未顯者 亦何限 而出於文字之可徵者 載之本篇 聞諸流傳之未實者 集之下方 名以零言隨錄 實亦有裨本篇無微或遺也.”

여 주목할 만한 글이 실려 있다. 『영언수록』 맨 앞에는 양녕대군이 어릴 때 庶兄 敬寧君에게 학문을 배웠다고 민가의 기록에 전하는데 어느 집안의 어떤 책에 있는지를 기록해놓지 않아 징험할 수 없어서 『지덕지』 원편에는 그 내용을 넣을 수 없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다음의 글이 뒤를 잇는다.

갑술년 가을에 都正 尹宗儀의 집에 있는 병풍에서 대군의 유필을 보았다. 그 내용은 적벽부이고 서체는 초서였다. 본떠서 새겨 인출한 것이라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시원스런 평소의 심획을 그래도 만의 하나라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그 판본이 호남 務安縣에 있는데 祀孫인 尙書 李承輔가 현감에게 부탁해 실어 날라 집안에 소장하였다. 수백 년간 산일된 나머지를 다시 집안에 소장하게 되었으니 실로 기이한 일이다. 누가 판목에 새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후대의 군자가 한 것으로 여겨진다.¹⁷⁾

위의 글에서 비로소 양녕대군과 초서 적벽부와 관련된 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극선이 갑술년(1874, 고종 11) 가을에 윤종의(1805~1886)의 집에서 본 병풍은 바로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초서 <후적벽부>이고, 무안현에 글씨의 판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손인 이승보(1814~1881)가 무안현감에 부탁해 자기 집안에 소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승보가 무안에서 가져온 판목이 바로 현재 지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판목인 셈이다. 이 기록은 앞서 지덕사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며 이 판목이 원래부터 지덕사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소장하고 있던 판목을 어느 해엔가 지덕사로 가져와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다는 전언과도 일치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초서 <후적벽부> 판목은 이승보에 의해 지덕사에 소장되었고, 지덕사본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여 지덕사본을 담양 몽한각에 잠시 가져와 중각한 뒤 다시 지덕사로 가져와 소장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몽한각본 말미에 새겨진 간기 ‘丁亥’는 이승보가 무안에서 판목을 가져온 1874년

17)李克善 編, 『至德誌』 권5, 『零言隨錄』. “甲戌秋 獲觀大君遺筆於尹都正宗儀家屏障 其文赤壁賦 而其體草書也 模鐫印出 不能無差 爽然平日心畫 猶可彷彿其萬一矣 其板本在於湖南務安縣 祀孫尙書承輔 囑其縣宰 輸藏家中 數百年散逸之餘 復藏本家 實惟異事 而未知爲何人繡梓 盖亦慮後君子之所爲也.”

이후일 것이므로, 십여 년 뒤인 1887년(고종 24)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의 『영언수록』의 글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극선이 1874년 윤중의 집에서 병풍을 보고 이승보가 무안에서 판목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양녕대군 후손가에 초서 <후적벽부>가 전해지지 않았으며, 상상만으로 양녕대군의 글씨가 어떠할 것이라는 짐작만 있었을 뿐이라는 점이다. 또한 ‘대군의 유풍을 보았다’ 또는 ‘누가 판목에 새겼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전해지던 초서 <후적벽부>를 후손의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양녕대군의 진적으로 확신한 데서 나온 것이지, 그 글씨가 양녕대군의 유풍이 확실하다는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문제는 지덕사본 외에 선암본이라는 판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초서 <후적벽부>로 추정할 만한 판목이 2본 이외에도 여러 본이 19세기까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초서 <후적벽부>가 과연 양녕대군의 글씨일까? 혹 다른 사람의 글씨가 양녕대군의 명성에 힘입어 잘못 진청된 것은 아닐까? 이 의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權應仁(1517~?)의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진사 黃耆老는 자호를 孤山이라 하였다. 초서를 잘 써서 한때 병풍 글씨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商山(尙州의 옛 지명)의 한 농부가 밭에서 竹筒을 주웠는데, 그 안에 초서 <후적벽부>가 들어 있었으니, 그야말로 이른바 회오리 바람과 소낙비[飄風驟雨]였다. 이것을 醴泉·成州¹⁸⁾ 두 고을에서 模刻하고, 진본은 軍守 安從堦 공이 가지고 갔다. 고산은 자신이 쓴 필적이라 하는데, 그가 쓴 것과 비교해 보면 글씨의 기본 틀이 아주 달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승지 李文樞는 세상에 글씨 잘 쓰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張汝弼이 아니면 이런 경지에 이르기 어렵다. 결코 고산이 쓴 것은 아니다.” 하였다고 한다.¹⁹⁾

위의 글은 『松溪漫錄』에 나오는 내용으로, 상주에서 발견된 장필 또는 황기로

18) 成州는 평안남도 成川을 가리키므로 지역상 예천과 가까운 星州의 오기로 보인다.

19) 權應仁, 『松溪漫錄』 下. “黃進士耆老 自號孤山 善草書 一時屏幃皆出其手 商山有一耕夫 得竹筒於田中 盛之以草書後赤壁賦 直所謂飄風驟雨者也 模刻於醴泉成州二邑 眞本則郡守安公從堦取去 孤山稱自家手蹟 而較其所書則機軸絕殊 人不以爲然 李承旨文樞甫世稱善書 而曰非其張汝弼難到也 決非孤山所書云云.”

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초서 <후적벽부>를 경북 예천과 성주에서 각각 판목에 새겼다는 내용이다. 황기로(1521~1575 이후)는 선산 출신으로 안동권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서예가이고, 이문건(1494~1567)은 을사사화(1545년) 이후 다년간 성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황기로와도 친분이 있던 인물이다. 위의 글을 쓴 권응인은 본관이 안동으로 星州 출신이다. 권응인은 이들과 동시기 인물로 그 역시 성주에 유배와 있던 이문건과 친분이 있었기에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²⁰⁾

‘회오리바람과 소낙비[飄風驟雨]’와 같았다는 표현은 양녕대군으로 전칭되는 초서 <후적벽부>의 특징을 묘사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밖에도 이문건의 『默齋日記』에는 장필의 초서 <후적벽부>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주위 사람들과 주고 받았던 정황이 실려 있으며,²¹⁾ 황기로가 <전적벽부>를 8쪽에 써서 이문건에게 주었다는 기록도 보인다.²²⁾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장필과 황기로의 초서 필적들이 당시에 각광을 받으며 목판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명가의 글씨를 목판으로 제작하거나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사적으로 공공연히 제작하여 유통하였던 정황은 이미 15세기 후반의 조맹부·선우주의 필적인 <적벽부> 관련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²³⁾

양녕대군과 동시기에 살았던 안평대군(1418~1453)의 필적은 다수의 판본 필

20) 권응인과 이문건의 교유상은李文樞가 기록한 『默齋日記』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默齋日記』上 6冊 嘉靖32년(1553) 11월 24일 조를 보면 권응인이 지은 四六文에 대해 이문건이 ‘文氣가 넉넉하고 재주가 있다’고 평하는 등 이들은 주로 시문을 통해 교유하였다.

21)李文樞, 『默齋日記』上 6冊 嘉靖 33년(1554) 갑인 5월 7일 조. “土遇書問 送還前日留置大學一卷曰 示之懇懇故乃還云云 且傳錦山郡守安而厚書問 及所送印出張汝弼草書後赤壁賦八紙來 間見甚奇 可喜可喜 而厚書曰 今因景遇伴奴書問之 兼寄草書云云 卽修復于土遇處 大學還送 未安于情之意.”

22)李文樞, 『默齋日記』下 7冊 嘉靖36년(1557) 정사 1월 22일 병자 조. “食後入見黃耆老于別館 求書赤壁賦於長紙 只書二丈而止.”;李文樞, 同著, 嘉靖36년(1557) 정사 1월 27일 신사 조. “黃耆老朝送所書前赤壁賦草書八丈 書法荒而熟.”

23) 成侃(1439~1504), 『虛白堂集』 권9, 『題赤壁賦後』;李宗準(미상~1499), 『慵齋遺稿』 권9, 『前赤壁賦書帖跋』.

적이 현재까지 존재하는데, 글씨에 능했다는 양녕대군의 필적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장필·황기로의 초서에서 보인 특징과 유사한 초서 <후적벽부>와 관련된 문헌기록이 장필과 황기로에게는 관련 기록이 있는 반면 양녕대군에게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韓國의 冊版目錄』은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간행되었던 책판 목록 37종을 집대성해놓은 것이다.²⁴⁾ 이를 통해 혹 양녕대군의 초서 <적벽부> 판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직하다. <적벽부>의 간행을 기록한 목록을 중심으로 <표 3>과 같이 표를 작성해보았다.

<표 3> 역대 <적벽부> 책판 목록

| 수록 서명 | 간행지역 | 장수(張數) | 목록명 | 목록작성시기 | 동일여부 |
|---------|------|--------|----------|----------|------|
| 赤壁賦 | 慶州 | 白紙1卷5丈 | 책판치부책 | [1740년경] | X |
| 赤壁賦 | 慶州 | 1卷3張 | 영남책판 | [1730년경] | X |
| 赤壁賦 | 慶州 | 1卷3張 | 경상도책판 | [1730년경] | X |
| 赤壁賦 | 昆陽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赤壁賦 | 昆陽 | 狀紙10張 | 고책판유처고 | [1780년경] | X |
| 赤壁賦 | 昆陽 | 狀紙10張 | 고서책판유처고 | [1700년경] | X |
| 赤壁賦 | 光州 | 白紙1卷3丈 | 책판치부책 | [1740년경] | X |
| 赤壁賦 | 光州 | 白紙1束 | 완영책판목록 | [1759년경] | X |
| 赤壁賦屏風草書 | 錦山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赤壁賦 | 南原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赤壁賦 | 務安 | 白紙1束3丈 | 완영책판목록 | [1759년경] | X |
| 赤壁草 | 務安 | 壯紙8張 | 책판록 | 미상 | ○ |
| 赤壁賦草 | 務安 | 紙8張 | 완영객사책판목록 | [1885년] | ○ |
| 赤壁草書 | 務安 | 8丈 | 삼남소강책판 | [1743년경] | ○ |
| 赤壁賦 | 務安 | 白紙13丈 | 책판치부책 | [1740년경] | X |
| 赤壁草 | 務安 | 8張 | 책판록 | [1780년경] | ○ |
| 赤壁草書 | 務安 | 8丈 | 제도책판록 | [1750년경] | ○ |
| 赤壁賦 | 茂長 | - | 고사촬요 | 1576년 | △ |
| 赤壁賦草書 | 茂長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赤壁賦 | 鳳山 | - | 고사촬요 | 1585년 | △ |

24) 鄭亨愚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版目錄(上·下)』(保景文化社, 1995).

전 양녕대군 초서 <後赤壁賦>에 대한 고증

| 수록 서명 | 간행지역 | 장수(張數) | 목록명 | 목록작성시기 | 동일여부 |
|--------|------|-----------|------------|----------|------|
| 赤壁賦屏風 | 星州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赤壁賦 | 永川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前後赤壁 | 義城 | 白紙10張,墨1丁 | 고책판유처고 | [1780년경] | X |
| 前後赤壁 | 義城 | 白紙10張,墨1丁 | 고서책판유처고 | [1700년경] | X |
| 赤壁賦 | 晋州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大赤壁賦 | 豊基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赤壁賦 | 豊基 | 白紙10丈 | 책판치부책 | [1740년경] | X |
| 赤壁賦 | 和順 | 白紙9張 | 영호열읍소재책판목록 | [1760년경] | X |
| 赤壁賦屏風書 | 興海 | 壯紙16張 | 경상도책판 | [1730년경] | X |
| 赤壁賦屏風書 | 興海 | 壯紙16張 | 영남책판 | [1730년경] | X |

※ 순서는 간행지역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함. 전 양녕대군 초서 <후적벽부>와 동일한 판본으로 추정되는 가능치에 따라 ○·△·X로 구분함.

본고에서 다루는 초서 <후적벽부>가 8쪽 병풍용으로 제작되었으므로 刊印에 소요된 장수를 고려하여 판단할 때 1743년에서 1885년 사이에 목록이 작성되고 무안에서 간행된 5종의 초서 <적벽부>는 목록작성 시기만 다를 뿐 동일본으로 보이며, 양녕대군의 사손 이승보가 무안에서 가져왔다는 지덕사본과 판본 소장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판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근거해본다면 지덕사본은 18세기 중반 무렵에 중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위의 표에서 보이듯 성주에서 간행된 적벽부병풍이 1585년에 작성된 『攷事撮要』 목록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권응인의 기록에서 예천과 성주에서 모각하였다는 장필 또는 황기로의 초서 <후적벽부> 목판본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동일본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아울러 청도 밀양박씨 선암문중본은 목록의 간행지역에 청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문중에서 사적으로 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제작 연대를 알 수 없으므로 지덕사본과 선암본 중 어느 것이 앞서는지의 선본 여부는 판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따라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책판목록』에서 필자를 중심으로 서명을 검색해보았으나 양녕대군이 필자로 나온 경우는 하나도 없다. 다만 장필과 황기로의 경우 다수가 발견된다 (<표 4> 참조).

<표 4> 역대 장필·황기로 필적 책판 목록

| 수록 서명 | 간행지역 | 분량 | 목록명 | 목록작성시기 | 동일여부 |
|----------|------|-------|------------|----------|------|
| 張汝弼草書 | 南原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張汝弼草書 | 南原 | - | 고사촬요 | 1576년 | △ |
| 張汝弼法帖屏風書 | 沃溝 | - | 고사촬요 | 1576년 | △ |
| 張汝弼法帖屏風書 | 沃溝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張汝弼書法 | 平壤 | - | 고사촬요 | 1576년 | X |
| 張汝弼書法 | 平壤 | - | 고사촬요 | 1585년 | X |
| 張汝弼書 | 興海 | 壯紙16丈 | 책판치부책 | [1740년경] | X |
| 黃孤山草書屏風書 | 寧海 | 紙8張 | 각도책판목록 | [1778년경] | ○ |
| 黃孤山草 | 禮安 | 紙8張 | 각도책판목록 | [1778년경] | ○ |
| 黃孤山書 | 玉果 | 白紙8丈 | 완영책판목록 | [1759년경] | △ |
| 黃孤山集 | 玉果 | 壯紙8張 | 영호열읍소제책판목록 | [1760년경] | △ |
| 黃孤山書 | 玉果 | 白紙8丈 | 책판치부책 | [1740년경] | △ |
| 黃孤山書 | 玉果 | 紙8丈 | 완영객사책판목록 | [1885년] | △ |
| 黃孤山書 | 玉果 | 白紙8張 | 책판록 | 미상 | △ |
| 黃孤山書 | 玉果 | 8丈 | 삼남소장책판 | [1743년경] | △ |
| 黃耆老屏風書 | 義城 | - | 고사촬요 | 1585년 | △ |
| 黃孤山草書 | 淸州 | 白紙3丈 | 완영책판목록 | [1759년경] | X |

※ 순서는 간행지역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함

위의 목록 중 전라지역인 남원과 옥구에서 간행된 장필의 필적 판본과 영남지역인 영해, 예안, 의성 등지에서 간행된 황기로의 필적 판본은 모두 초서 또는 8폭의 병풍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양녕대군으로 전칭되는 초서 <후적벽부> 판본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초서 <후적벽부> 필자에 대해 여러 문헌 자료를 통해 고증해보았다. 그 결과 양녕대군이 이를 썼을 가능성은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장필 또는 황기로일 가능성이 비증있게 제고되었다. 이 필적을 장필 또는 황기로가 썼다고 장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나, 서풍의 유사성과 문헌 자료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필자의 가능성을 장필과 황기로에 두는 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초서 <후적벽부>의 필자가 과연 양녕대군일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서풍과 문헌으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서풍을 분석하여 유사한 필적과 비교해보았으며, 다음으로 양녕대군의 저술과 행적을 기록한 『지덕지』와 각종 문헌, 그리고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역대 책판 목록을 뒤져 양녕대군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지덕사에 소장되어있는 초서 <후적벽부> 판목은 양녕대군의 사손 이승보가 1874년(고종 11) 이후 전남 무안에서 가져와 소장하게 된 것이고, 지덕사본을 모본으로 삼아 담양에서 몽한각본을 중각한 해는 1887년(고종 24)인 것으로 비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서풍의 유사성과 문헌 자료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서 <후적벽부>는 양녕대군의 글씨가 아니며 16세기 초반에 성행했던 장필 또는 황기로의 글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해결하지 못한 의문이 남는다. 초서 <후적벽부>는 무슨 연유로 지금까지 양녕대군의 글씨로 전칭되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李圭景(1788~1856)은 승례문 편액 글씨를 서풍의 이유를 들어 정난종이 쓴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승례문 편액이 양녕대군의 필적으로 전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승례문 편액이 애초에 양녕대군의 글씨라고 와전된 데다 괴이한 광선이 내쉴 곳을 발굴하여 임진왜란 때 잃었던 편액을 다시 찾아 걸었다는 광선에 관한 설이 傳會된 것으로 보았다.²⁵⁾ 이어 그는 명적의 유실에는 으레 괴이한 광선설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淳化閣帖》을 들었다. 그의 예시는 『淳化祕閣法帖考正』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陳懋仁의 『泉南雜記』에 이르기를, “《순화각첩》 10권은 송 말엽에 남쪽으로 행행할 때에 泉州에 남겨 두었다가 이윽고 돌에 새겨 못 가운데 묻어 놓았다. 오랜 뒤에 그곳에서 이따금 괴이한 빛이 나서 말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기에

2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6 論史類1, 『崇禮門大成殿額辨證說』.

과 보니 바로 이 《순화각첩》이었다. 그러므로 천주 사람들이 첩의 이름을 ‘馬蹄眞跡’이라 하였다고 한다.”²⁶⁾

송례문 편액 글씨의 필자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이론이 있으므로 논외로 두고자 한다. 다만 천하의 명적뿐만 아니라 역대로 뛰어난 인물과 훌륭한 문장에 기이한 광채설이 부회되는 사례를 설명해놓은 이규경의 변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²⁷⁾

양녕대군은 부왕의 뜻이 아우 忠寧大君(후의 세종)에게 있음을 알고 거짓으로 미친 채하여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된 일화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행실은 周泰伯이 아우 季歷에게 양위한 덕에 비견되고, 숙종은 그의 사당에 ‘至德’이라는 편액을 내려주는 등 후대에 지속적인 추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그의 덕행과 기행적인 요소가 광선설과 유사한 의미로 부각되면서 <후적벽부>가 그의 글씨로 전칭된 까닭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녕대군이 쓴 것으로 전하는 초서 <후적벽부>는 현재 필자가 양녕대군으로 명시되어 있다. 차제에 이 작품의 필자에 대해서는 양녕대군의 앞에 전칭의 의미인 ‘傳’자를 붙이든가 아니면 필자미상으로 놓아야 한다는 점을 첨언해 둔다.

<참고문헌>

- 權斗寅. 『荷塘集』.
權應仁. 『松溪漫錄』.
金正喜. 『阮堂集』.
成倪. 『慵齋叢話』.
成倪. 『虛白堂集』.

26) 淸 王澐, 『淳化祕閣法帖考正』 권11, 『馬蹄帖』. “陳懋仁泉南雜記云 淳化閣帖十卷 宋季南狩 遺於泉州 已而刻石湮池中 久之時出光怪 樞馬皆驚怖 發之即是帖也 故泉人名其帖曰馬蹄眞跡.”

2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1 人事類1, 『人物有光辨證說』.

- 李肯翊. 「燃藜室記述」.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 李克善 編. 「至德誌」.
- 李文樾. 「默齋日記」.
- 李裕元. 「林下筆記」.
- 李宗準. 「慵齋遺稿」.
- 黃胤錫. 「頤齋遺藁」.
- 「新增東國輿地勝覽」.
- 「四庫全書」(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
- 「朝鮮王朝實錄」(sillok.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2005).
- 「나무에 새긴 지식정보」 목판. 한국국학진흥원, 2008.
-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86指定篇)」. 文化財管理局, 1988.
- 柳志福. “조선 중기 黃耆老 草書風의 유행.” 『美術史學研究』 第253號(서울: 韓國美術史學會, 2007). 95-127.
- 鄭亨愚, 尹炳泰 編著. 「韓國의 冊版目錄(上·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朝鮮王朝御筆」. 서울: 예술의전당, 2002.

